



# 나·무·에·얼·린·동·화/소나무

## 소나무가 사철 푸르게 된 이야기

글·신현배  
시인·아동문학가

**중** 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오랜 옛날, 천지 만물을 만든 옥황상제는 하늘나라에서 땅 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으음, 동물이며 식물이며 모두 잘살고 있군.’

옥황상제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바닷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물고기들도 아무 걱정 없이 즐겁게 살고 있군.’

옥황상제는 기분이 좋아져 환히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인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볼까?’

옥황상제는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순간, 옥황상제의 얼굴에는 당혹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인간들은 행복해하기는커녕 한탄하며 한숨을 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 참, 뜻밖이네. 만물의 영장으로 세워 놓은 인간들이 왜들 저러고 있지?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잖아.’

옥황상제는 어찌 된 일인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아끼는 신하인 백선학(흰 두루미)을 불러 인간 세상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백선학은 눈이 밝아 천 리 밖을 내다보고, 날개가 튼튼해 단숨에 천 리를 날았습니다. 따라서 인간 세상을 금방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알아보았느냐?”

백선학이 하늘나라로 돌아와 옥황상제 앞에 머리를 숙이자, 옥황상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예, 인간들이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 불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불만은, 인간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신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데, 자기들만 죽게 만들

었다며 옥황상제님을 무척 원망하더군요. 옥황상제님이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옥황상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으음, 인간들한테 그런 불만이 있었군그래. 하긴, 신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이 백 년을 못 채우고 죽어야 하니 불평할 만도 하지. 좋아, 인간 역시 죽지 않게 해주지.”

하늘나라의 신들이 죽지 않는 것은, 죽지 않는 영약(영묘한 효험이 있는 약)을 먹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옥황상제는 인간들에게도 그 영약을 보내 주기로 했습니다.

옥황상제는 신하들을 모아 놓고 말했습니다.

“죽지 않는 영약은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중요한 약이다. 이 약을 안전하게 인간 세상에 보내야 하는데, 누가 이 일을 맡겠느냐?”

이 때 은하수를 지키는 까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옥황상제님,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인간들에게 그 영약을 전하고 오겠습니다.”

옥황상제는 마뜩찮은 얼굴로 까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녀석은 큰소리만 칠 줄 알았지, 행동이 느리고 게으르단 말이야. 심부름을 보내기에는 적당하지 않아.’

옥황상제는 이런 생각을 하며 까치에게 물었습니다.

“네 뜻은 장하다만, 네가 정녕 이 일을 해낼 수 있겠느냐? 하늘나라에서 인간 세상까지는 멀고도 험한 길

이다. 인내심도 없이 무턱대고 뛰어들었다가는 고생만 실컷 하고,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될 수 있어. 덤벙대 다가는 영약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옥황상제님, 마음을 놓으십시오. 어떻게든 임무를 마치고 무사히 돌아오겠습니다. 만약에 옥황상제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생긴다면 하늘나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까치는 끈질기게 옥황상제를 설득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허락을 얻어내고 말았습니다.

“알았다.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옥황상제는 까치에게 죽지 않는 영약과 책 한 권을 내놓았습니다.

“이 책에는 죽지 않는 영약 만드는 비법이 적혀 있다. 영약과 함께 이 책도 인간들에게 잘 전해 주어야.”

까치는 영약과 책을 끈으로 묶어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인간 세상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까치는 부지런히 날아갔습니다. 까치의 머릿속에는 하루빨리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 영약과 책을 꼭 전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까치는 쉬지 않고 날아갔습니다.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앞만 보며 날갯짓을 계속했습니다.

“아, 저기가 인간 세상이로구나!”

까치는 봉우리들이 우뚝우뚝 솟은 산이 보이자 반가워 소리쳤습니다. 그 산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금강산이었습니다.

까치는 가장 높은 봉우리로 내려가 소나무 가지에 사뿐히 앉았습니다.

‘정말 힘들고 고단한 여행이었어. 그래도 무사히 인간 세상에 왔으니 천만 다행이야.’

까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도 없고 동물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소나무들뿐이었습니다.

‘이제 인간들을 만나 영약과 책을 전하는 일만 남았구나. 잠을 한숨도 못 자서 그런지 졸음이 몰려오는걸. 잠깐 쉬었다가 인간들을 만나러 가야겠다.’

까치는 눈을 감고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까치는 목이 허전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으악, 영약과 책이 없어졌어! 맙소사!”

까치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를 어찌지? 이렇게 되면 나는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없는데.’

까치는 미친 듯이 산 속을 뒤졌습니다. 그러나 영약과 책은 끝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잠든 사이에 누가 가져갔지? 혹시 나무꾼이 산에 나무를 하러 왔다가 몰래 훔쳐 간 게 아닐까? 그렇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까치는 인간들이 사는 동네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집집마다 다니며 집 안을 엿보았습니다. 하지만 영약과 책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까치는 임무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때부터 인간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까치가 지금도 나뭇가지에 앉아 집 안을 엿보는 것은 영약과 책을 찾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영약과 책을 훔쳐 간 것은 누구일까요?

까치가 인간 세상에 내려왔을 때에는, 소나무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소나무도 다른 나무들처럼 가을이 되면 잎에 단풍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시작되면 하나도 남김없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소나무는 까치가 잠든 사이에 영약을 훔쳐 먹음으로써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겨울이 시작되어도 잎이 떨어지지 않고 사철 푸르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금강산에는 신선이 살고 있었습니다. 신선은 죽지 않는 영약 만드는 비법이 적힌 책을 몰래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신선은 이 때부터 하늘나라의 신들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